

광주 아동학대 연간 844건

광주시, 대응체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0년 860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694건(80.7%)이다.

가해자 유형은 부모 565건(81.4%), 대리양육자 79건(11.4%), 친인척 50건(7.2%) 등이다.

연령별로는 10~12세가 170명(24%)로 가장 많고 12~15세 146명(21%), 7~9세 131명(19%) 등의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신고건수는 1029건, 학대 판정 건수는 844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과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고의무자 신고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학대 아동 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

오는 7월까지 전담공무원 19명 배치 예정

신고접수·현장조사 등 24시간 신고접수

이지킴플'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과 행위자에 대한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하나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광주시와 자치구에 총 19명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된 공무원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아 24시간 근무한다.

앞서 지난달까지 동구, 북구, 광산구에 총 11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상반기 중 서구와 남구에 8명의 전

담공무원을 배치한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분리제 시행에 대비해 전담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해 신규자는 직무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총 160시간으로 늘리고, 경력자는 매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분리 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자치구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 11명에서 2022년까지 19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으로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 실시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자치구 직원이 분기별로 방문 조사하고, 위기가동은 드립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경찰, 전문기관과 함께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합동점검도 수시로 한다.

3월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에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절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곳에서 5곳으로 확충하고, 확충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한다.

또 광주시는 경찰청, 교육청, 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문기구를 구성해 분기별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 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관현미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광주 자치구 유일 '코로나19 법적대응팀' 운영

광주 동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법적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행정·법적조치 강화로 방역지침 위반사례를 줄여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기하고 코로나19 대응부서(보건소, 주민안전과 등)의 가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응팀은 법무전문관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동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응팀은 지역사회의 위협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검토 사항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국악공연' 유튜브 실시간 중계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그동안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을 전수관 내 공연장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람객을 좌석수의 40% 수준인 60여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수관측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병행하게 된 것이다.

남구, 교류도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 연다

광주 남구는 자매·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대면 직거래 온라인 장터 개설을 추진한다.

남구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호방문 등 대면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교류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자매·우호도시 15곳에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장터 사업을 제안해 10곳으로부터 참여 확정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전국 10곳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를 오는 5월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구, 임차 소상공인 대상 3무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북구가 지난해 실시한 소상공인 상가 실태조사 결과 임차료가 소상공인에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임차료 등 경영안정 자금에 한해 신용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광산구, 주차장 공유하면 최대 1억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완화 대책으로 '2021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종교·공동주택 등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5년 이상, 1일 7시간, 주 5일 이상, 2년 개방을 조건으로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같은 지원사업으로 11곳, 29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주차장 공유 시설 확대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0월까지 연중 상시 접수 받는다. 광산구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교통지도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행택기자



구례 쌍산재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힐링 핫 플레이스' 전남도 정원·수목원 네트워크 구축

관광투어·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관광 활성화

전남도는 순천만국가정원(동부권),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서남부권), 담양 국립한글정원문화원(북부권)을 핵심축으로 지역 정원·수목원과 연계한 '전남 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권역 간 연계 관광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발굴과 공동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들의 정원 생활

향유는 물론 관광객을 유도해 지역산림관광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신규 정원 조성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에 전국 최대 규모인 15개 사업, 432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핵심사업으로 ▲국립완도난대수목원(1872억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67억원) ▲국립

한국정원문화원(196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3개 사업은 산림청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전남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개인이 만들고 가꾸 온 특색있는 민간 정원·수목원도 연계한다. 전남에는 14개의 민간정원과 3개의 사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남 포레스트수목원과 구례 쌍산재, 보성 윤제림(성림정원)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해 많은 관광객

이 찾았다.

지난해 10만명이 방문한 해남 포레스트수목원은 수국꽃과 여름축제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동서양의 인문학이 담긴 소정원이 조성돼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 tvN에서 방영 중인 '윤스테이(윤여정 주연)' 촬영 장소인 구례 쌍산재도 입소문을 타 인기가. 깊은 세월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택정원과 정원 해설이 정겨워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납득에서 제1안인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비	보험료	비율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